

새해 광주시정·전남도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란에서 벗어나 2014년 완공할 수 있을 지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될 전당의 2010년 공정률은 2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표 연안습지인 순천만. 전남도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야구장·선수촌·구도심 재생 박차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전력 질주

■ 광주시정

2011년은 민선 5기 강운태 광주시장의 시정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다. 강 시장이 2010년 하반기 해결에 주력했던 광주 의 새 야구장,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연구개발(R&D) 특구,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란 등은 모두 민선 4기 중·후반기에 촉발됐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상당한 과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서울러 매듭지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강 시장이 자신만의 정책을 펼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 강 시장은 자신이 표방했던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이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차별화되는 정책들도 추진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첨단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삼각점으로 해 갖가지 개별 사업들이 추진됐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민과의 대화’와 ‘구도심 재생’이었다.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이 우선’=시민과의 대화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강 시장이 당선자 시절부터 26차례에 걸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413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사안까지 시장이 직접 챙기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노인정 관련 다름에서 도로 소음 문제까지 일일이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장의 모습에 관련 실과와 담당 직원의 자세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원탁회의, TF팀 등 다양한 소통통로를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시정에 참여시킨 것도 민선 4기와 달라진 점이다. 민선 4기까지 모든 공공시설은 도심 외곽에 들어서는 것을 당연시했다. 민원인이 없고 땅 값이 싸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구도심은 쇠락을 거듭하고, 도시의 불균형 발전은 심화됐다. 민선 5기 들어 도시재생추진단이 발족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결정했으며, 도심 내 상징구조물(Urban Folly)을 구도심 일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을 돌리고, 편하고 쉬운 방안이 아니라 어렵지만 함께 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중간수준으로 =광주의 1인당 GRDP는 대구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국적으로 1인당 총생산이 2만 달러를 다시 넘어섰지만 광주는 1만5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될 만큼 산업기반과 고급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강 시장이 2011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광주의 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인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 업체 3890곳 중 유

치가능성이 높은 150곳을 선정해 투자유치에 나서고 ‘2012 세계한상대회’도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내 문화기업체 30곳을 입주시켜 350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현재 7705석 수준의 콜센터도 2011년 1000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5000석을 더 유치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 50곳 설립을 통해 일자리 500개를 만들고 공공부문에 서도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심재생=세계 100대 건축가들이 광주유심성 옛 터와 푸른길 공원에 설치하는 상징구조물은 광주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개념을 담은 버스승강장, 화장실 등을 2011년 13곳, 2020년까지 100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U대회 선수촌의 신속한 추진 등도 시급한 사안이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구도심을 문화산업타운과 상징특화거리로 꾸미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및 중심사 입구 문화예술관광촌 조성 등도 본격화한다. 구간 경계조정 문제도 가시화된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 지역 내 의견을 집결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곽 택지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의 원인으로 불거진 지역 내 불균형 및 구도심 쇠락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라=지연되고 있는 연구개발(R&D)특구가 2011년 상반기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과 중국의 연구인력까지 포함하는 개방형 연구·산업화 국제협력단지로 육성되는 광주 R&D특구는 첨단·진국산업단지, 신통지구, 장성 남면·진원면 일대 18.73km를 그 범위로 하며 오는 2015년 1단계에 4825억원(국비 4400억원 시비 150억원 민자 275억원) 등이 투입된다. 특구 지정에 따라 지원부문을 설립하고 연구개발과제 선정, 한·중·일 교류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에도 뛰어 들었다. 이 역시 2011년 상반기 유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될 예정이다. 7년간 무려 3조548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광주로 유치된다면 향후 광주가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이미 반석 위에 올라 있는 광산업, 자동차산업, 가전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3D 및 터치융합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금형클러스터 등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 세계 최초 UN인권도시 지정 여부 등도 2011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저탄소 녹색성장·국제행사 등 만전 기업 2천개 유치 ‘일자리 창출’ 올인

■ 전남도정

전남도의 올해 화두는 ‘잘 사는 전남’, ‘돌아오는 전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전남만이 가진 비교 우위의 친환경 경작인 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없는 전남만의 녹색 경쟁력을 축적,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역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3농정책 육성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돈 버는 농·어촌으로 =친환경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야 ‘농도(農道) 전남’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도내 농업인구는 모두 42만5000명(18만1000가구). 인구 비율로만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농가 소득은 가장 낮은 게 현실이다. 수입 개방에 따른 농촌 들뜬의 한숨 소리로 커져만 가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5년간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것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버려진 땅’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전남도는 올해도 ‘3농 정책’강화에 총력을 쏟는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 생태 중심지’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수산·축산 분야도 친환경 인증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를 통해 차별화,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유통·수출과 연계돼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산물의 경우 마을·들녘별 농업회사 및 시·군 유통회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등에 적극 나서는 한편 품목별 주식회사 건립 및 표준화·브랜드화 등 수산업 및 축산·임산물의 기업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구 200만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전남 젊은층들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인구 유출까지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기업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전

남도는 기업 2000개 유치를 위한 총력 체제에 나선다는 전망이다.

1시·군 1읍·면·동별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여신지원상설창구 확대 및 CEO 초청 간담회, 지역 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또 생물·신소재·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도 힘을 쏟는다.

서남권 연안 및 해안·해상에 5GW급 발전단지과 풍력설비 전용산단(231만㎡), R&D센터 구축사업 등을 조성하기 위한 5GW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주항공산업 등을 육성,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지역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 생물의학연구센터·나노바이오연구센터·생물방제센터·식품산업연구센터·천연자원연구원·한방산업진흥원·해양바이오산업센터 등 7대 생물연구기관 활성화도 이같은 구상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의 세계화 =전남도는 F1 코리아 그랑프리·2012 여수세계박람회·2012 국제농업박람회·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위해 민간의 준비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이미지를 높이면서 수도권의 변방이 아닌,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한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우 지난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경주장 건설이 마무리된 만큼 조기에 대해 개최 붐을 조성하고 적자 폭을 줄이고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홍보·마케팅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경기장도 연간 2000 이상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회·전시회를 유치하는데 힘쓰는 한편, 경주장 주변을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조성 및 SOC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박람회장으로 이어지는 핵심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서둘러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박람회를 위한 고급 숙박시설 확충 및 홍보에 매진한다.

아울러 국제농업박람회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기반시설 정비 및 해외 참가국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경기장



이순신대교